

보도시점 (온라인) 2026. 7. 29.(수) 18:00
(지 면) 2026. 7. 30.(목) 조 간

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

-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29일 가평군 무더위쉼터 및 드론 예찰 점검
- 취약계층 보호와 무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 실천 당부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29일(수) 경기도 가평군을 방문하여 무더위쉼터 운영과 드론 예찰 등 지방정부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27일 폭염중대경보 발효와 함께 폭염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됨에 따라, 강화된 폭염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윤호중 본부장은 무더위쉼터를 방문하여 운영과 홍보 현황을 살피고 쉼터 관리자와 이용 중인 어르신들에게서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어, 사용 빈도가 높은 무더위쉼터를 야간과 주말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 연장 운영을 요청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당부하였다.

이후, 가평군에서 운영 중인 드론 예찰 활동을 참관하며, 사람이 일일이 살피기 어려운 논밭과 야외 작업장 등을 드론으로 어떻게 점검하는지 확인하였다.

드론을 활용한 예찰은 농업인과 야외노동자의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데 효과적인 만큼, 이·통장 및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과 연계해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등 새로운 특보 기준에 맞춰 현장에서도 강화된 폭염 대응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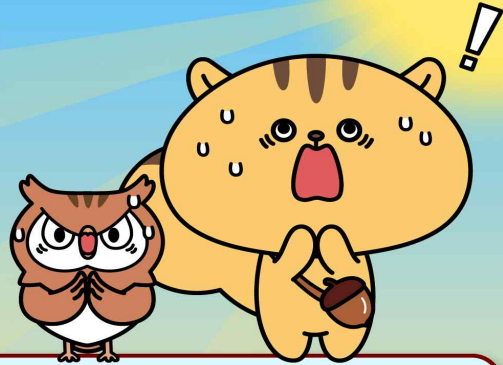
윤호중 본부장은 “최근 몇 년간 폭염이 길어지고 온열질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무더위쉼터 연장 운영과 드론 예찰 등 폭염 대책이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폭염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진희 (044-205-6360)
		담당자	시설사무관	조호명 (044-205-6364)



폭염 6대 행동요령



본격적인 무더위
● 폭염특보 33℃

무더위 기상상황 확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야외활동시 신체노출 최소화

***실내온도 26~28 유지**

시원한 장소 휴식

충분한 수분섭취

가족 또는 이웃의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